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플러스 1 and EBS 플러스 2 program schedule tab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corresponding advice.

“또 19금이냐고요? 여자의 오묘한 심리 담았죠”

앨범 ‘트루스 오어 데어’로 1년 4개월만에 컴백한 가인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27)이 1년 4개월 만에 발표한 세 번째 솔로 앨범 ‘트루스 오어 데어’(Truth or Dare)는 출시 전부터 강렬한 인상을 줬다. 먼저 공개한 수록곡 ‘Fxxk U’에서 그는 욕설이 담긴 가사를 반복하고 뮤직비디오에서 배우 주지훈과 위태로운 남녀의 거침없는 사랑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앨범의 ‘피어나’에서도 섹시한 이미지로 승부했지만 이번엔 한층 도발적이어서 그의 각오가 ‘뭔가’ 남달라 보였다. 가인은 “‘또 19금이야?’라며 뻔하게 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엔 목숨을 걸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검은색 아이라이너가 트라이드 마크인 눈매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전까진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지난해 솔로 앨범을 내지 못했고 이젠 나이도 있으니 나 목숨을 걸 때도. 하하. 앨범 작업을 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다 보니 생각보다 더 예민해졌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특히 공을 들인 건 음악이다. 그는 수록곡마다 여주인공 화자의 캐릭터를 잡고 스토리를 부여해 나름의 전력을 갖고 앨범을 완성했다. 너무 사랑해서 불안한 마음을 담은 ‘Fxxk U’를 비롯해 앨범에는 ‘보통 여자’의 다양한 심리가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수록곡 제목에 ‘진실 혹은 대답’, ‘블랙 & 화이트’ 등 대조적인 단어가 쓰인 것도 이때문이다. 가인은 “꼭마다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의 여자들이 등장한다”고 귀띔했다. 타이틀곡 ‘진실 혹은 대답’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푹이 될 수 있는 소문을 주제로 했다. 1991년 마돈나가 주연한 다크멘터리 형식의 영화 ‘진실 혹은 대답’에서 제목의 모티브를 따왔다. 가인은 “재밌는 소문과 진실 가운데 어



는 게 진실인지 모르지 않나”라며 “노래의 화자는 소문이 돌아도 신경 쓰지 않는 ‘쿨’한 성격의 여자”라고 설명했다. 실제의 그녀는 ‘갈음’과 ‘다름’이 있다. “연예계 생활을 한 지난 8년 동안 다형히 저에 대한 뚜렷한 무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연예인란 직업에는 장점이었죠. 하지만 한때는 악성 댓글에도 상당히 신경 썼어요. ‘쿨’한 척했지만 인터넷에 뭔가 뜨면 바로 찾아보곤 했죠.” 이희라, 박진영 등이 작곡가로 참여하면서 앨범은 한층 재미있어졌다. 이들은 어디로 될지 모르는 가인의 독특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맛춤’ 노래를 선물했다. 이희라가 작사·작곡한 ‘블랙 & 화이트’에 “TV에서 많이 보던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 담겼다. 끝없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인디 팝 사운드와 드라마틱한 전개로 완성했다. 가인은 “희리 언니와 친분이 없었는데 나의 프로듀서의 의뢰로 곡을 받을 수 있었다”며 “TV에서 많이 보던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니 처음엔 집중이 안 되고 긴장됐다”고 웃었다. 박진영에게는 두 달을 즐라발라드곡 ‘Q&A’를 받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조선미녀삼총사’를 찍으면서도 배우 하지원과 함께 연기하며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원과 그가 지난 2009년 카메오로 출연한 영화 ‘내사랑 내결례’를 통해 연을 맺은 바 있다. “내사랑 내결례”를 찍으며 하지원 선배에게 반했어. 영화는 지난해 초 촬영이 끝났는데 당시 음반 활동 때문에 출연을 고민했다가 하지원 선배가 주인공이란 말에 결정했죠. 선배는 사람 자체도 매력 있지만 배우질이 많거든요. 연기 잘하는 분과 있으면 비교되겠지만 동경하는 분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면서 배움을 얻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투개월 김예림·도대운 9개월만에 다시 뭉쳤다

연인들의 달콤함 담은 신곡 ‘토크 투 미’ 공개

앨범 ‘슈퍼스타K 3’ 출신 혼성듀오 투개월(김예림·도대운·사진)이 9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미스틱89가 10일 밝혔다. 투개월은 소속사 미스틱89가 ‘토크 투 미’(Talk to me)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지난해 5월 ‘넘버 원’(Number 1)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투개월은 도대운이 화음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고 김예림이 솔로 활동을 펼치며 팀 공백기를 보냈다. ‘토크 투 미’는 윤종신이 작사하고 정성원이 작곡했다. 노랫말에는 서로 이해하며 사랑을 이어가자는 보통 연인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김예림과 도대운은 독특한 음색으로 화음을 만들어냈다. 지난 9월 투개월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빨간타인테이를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은 연인 600여 쌍의 사진이 한쪽 양쪽을 엮었다. 미스틱89 관계자는 “빨간타인테 시즌을 맞이해 달콤한 사랑 노래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TV 하이라이트 section featuring articles on '87살 할머니 행복한 싱글 라이프', '10년간 33% 늘어난 한부모 가정', and '왜 사람들은 세계일주를 할까'.